격려받는 자녀, 질책당하는 자녀의 차이

캔자스 주립대의 Betty Hart 교수와 앵커리지대학 Todd Risley, 두 교수가 공동 연구한 흔히 "3 살에 3 천 2 백만 단어 갭" 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유명한 논문이 있다. 이 연구는 미국인 42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사이에서 오가는 대화의 내용을 녹음으로 수집한 다음 그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여서 대화내용이 자녀의 학업성취도, 성품형성, 자의식 형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서 그 결과를 내어 놓았다. 이들 42 가정을 전문직업인 가정(13), 일반근로자 가정(23), 그리고 사회복지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또는 "웰페어"로 불리기도 한다) 수혜자가정 (6),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 가정의 자녀들이 7 개월의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만 3 살이 될 때까지 2 년 반 동안 매달 한 번씩 각 가정을 방문하여서 한 시간씩 부모와 자녀가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내용을 녹음한 다음 그 내용을 분석해서 통계자료를 만들었는데 그 결과 이들 가정의 부모, 자녀사이의 대화내용에서 두 가지 중요한 차이가 드러났었다. 첫번 째 중요한 차이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대화 중에서 사용되는 전체 어휘 수, 시간당 단어 사용수, 그리고 사용되는 단어의 종류에 대한 차이이고, 두번 째 차이는 자녀의 행동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긍정적인 표현화법(“Affirmative”)과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억누르는 부정적인 표현화법(“Prohibitive”)의 사용 비율에 대한 차이이다.

첫번 째 차이는 자녀들의 학업성취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것으로 나타났었다. 전문직업인 가정의 자녀들은 K 학년이 시작될 무렵이면 SSI 수혜가정의 자녀들보다 약 3 천 2 백만 번 더 많은 언어접촉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기간 동안 사용된 어휘 수는 전문직업인 가정은 평균 2,176 단어인데 반해 SSI 수혜가정에서는 모두 974 단어로 밝혀졌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Meaningful Differences in the Everyday Experience of Young American Children”*를 참조하기 바란다.

두번 째 차이, 즉 "Affirmative"와 "Prohibitive" 두 가지 대화법 비율 차이는 자녀들의 성격적 특성 및 자의식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Affirmative"와 "Prohibitive" 두 가지 대화법 비율 차이에서 전문직업인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의 행동을 격려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화법이 한 시간에 약 32 번 사용된 반면(위 그래프에서 EA), 제지하거나 부정적인 화법의 사용(그래프에서 DP)은 같은 시간에 다섯 번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서 약 6 대 1 의 비율로 격려, 칭찬의 긍정적 화법이 더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었다. SSI 수혜가정에서는 이것이 격려성 5 번, 억누르거나 못하도록 막는 화법이 11 번으로, 한 번 격려 때마다 두 번 이상 제제를 가하는 것으로 거꾸로 나타났었다. 이를 일 년 동안 통계를 내어보면 전문직업인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일 년에 약 166,000 번의 격려성의 말을 듣고 26,000 번을 제지당하는 반면, SSI 수혜가정의 자녀들은 57,000 번을 제지당하고 26,000 번 격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논문은 몇 가지 중요한 결론을 내어 놓았다. 우선 아이들이 취학 전에 언어기능발달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가정에서 갖추게 된다는 것과, 일단 그런 기능을 갖추게 되면 열차가 정해진 궤도를 따라 달려가듯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탈하지 않고 확대, 지속된다는 것이다. ("Follows the developmental trajectory"로 연구팀은 표현하고 있다). 반면 이런 기능을 갖추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나중에 학교에서 플래시 카드로 새로운 단어를 기억 속에 주입식으로 집어넣는 강도높은 특수교육을 제공해주어도 일찍 "궤도에 올라선 학생들"을 따라잡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6 년 후에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3 학년이 되었을 때 다시 실시한 언어성취도 테스트에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SAT 와 같은 시험의 언어영역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의 언어경험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고등학교 가서 SAT 를 준비하느라 급작스럽게 플래시 카드로 단어를 외우고 독해력을 향상시키고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해도 어린 시절에 이미 언어기능을 갖추어서 "열차가 궤도를 타고 가듯이"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어 온 미국 중산층 자녀들의 언어능력을 따라 잡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HCC 클리닉에 와서 IQ 테스트를 하고 가는 한국계 학생들의 부모님들 중에 가끔 언어영역에서의 낮은 지수로 인하여 전체지능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을 때 IQ 테스트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를 보면 어디에서 언어지능에 문제점이 있는지 드러나고 있다. 이 학생들이 비록 미국에서 태어났다고는 해도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7 개월 정도부터 K 학년까지 최소한 2,000 어휘를 가정에서 꾸준하게 사용해 줄 때 미국의 전문직업인 가정의 자녀들과 비슷한 수준의 언어기능을 깨우치게 할 수 있으며 위에서 말하는 "정상적 궤도"를 달리는 언어지능이 발달하게 된다. 한국계 이민가정에서 부모가 한국말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방법이 있다. 영어언어능력 발달을 위해서 두 가지 부모기술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녀와 함께 책을 소리 내어 읽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녀가 소리 내어서 읽을 때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는 것이 그것이다. 이 두가지 부모기술은 미국에서 자녀키우기 필수부모기술에서 ”하루 10 분, 일주일에 50 분 자녀와 책읽기”와 “자녀와 함께 책읽기 부모기술”로 다루고 있다.

이 연구의 두 번째 통계자료가 학계에 던진 충격은 대단하였다. 1 년에 166,000 번을 부모가 "Great job!" "Tell me how you did it." "You must be so proud of yourself." 이런 격려와 긍정적, "Affirmative"한 말을 듣고 자란 자녀와, 1 년에 57,000 번을 "No. Don’t do it!" "Stop it!" "You so stupid!" "Dummy!" 이렇게 자녀의 기를 꺾는 부정적, "Prohibitive"한 말을 듣고 자란 자녀들의 자아존중심이 서로 다르게 형성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매일 무심코 부모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서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 매우 놀랍다고 연구를 주도한 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에서 소개하는 "필수부모기술" 중에서 "Positive Opposite" 부모기술이 있다. 칼럼으로, 그리고 "Positive Opposite 부모기술" YouTube 동영상으로 올라가 있는데 연구팀이 말하는 "Affirmative"화법을 사용하는 부모기술을 배울 수 있다. 여기서 부모-자녀 사이의 이러한 대화법을 "기술"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은 이것이 오직 연습을 통하여서만 익힐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냥 한 두번 보고 듣고, 또는 이런 논문에 대하여 지식을 부모가 갖추었다고해서 저절로 나오는 기술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